

新羅 塼築模倣型 石塔의 특징과 전개과정

이 순 영 *

I. 머리말
II. 전축모방형 석탑의 현황과 특징
III. 전개과정과 건립시기
IV. 후대에 끼친 영향 및 의의
V. 맺음말

I. 머리말

신라 석탑은 감은사지 삼층석탑에서 양식적 완성을 이룬 후 신라 말기까지 큰 양식 변화 없이 동일한 양식의 석탑이 다수 건립되는데, 이러한 일반형 석탑과는 별도로 ‘전탑을 모방한 석탑’인 模塼石塔 역시 나름의 양식적 계보를 형성하며 전개되었다.

모전석탑에 대해서는 그동안 형태와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¹ 우선 용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모전석탑’은 크게 분황사 모전석탑과 같이 석재를 塼形으로 만들어 積層하는 형식과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과 같이 일반형 석탑처럼 석재를 이용하지만 옥개석 낙수면을 계단식 지붕형으로 나타낸 형식으로 구분된다고 할

* 용인시청

¹ 秦弘燮, 「韓國模塼石塔의 類型」, 『文化財』 3(1967), pp. 1-21; 鄭永鎬, 「模塼石塔의 類型: 統一新羅의 代表作을 中心으로」, 『월간중앙』 29(1970), pp. 175-177; 張忠植, 「新羅 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1984), pp. 145-169; 張忠植, 『新羅石塔研究』(일지사, 1987), pp. 75-95;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학연문화사, 1998), pp. 123-187;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0(1999), pp. 161-197; 張忠植, 「善山 竹杖寺 模塼石塔의 復元 問題」, 『동악미술사학』 3(2002), pp. 17-28;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41(2013), pp. 163-194; 李順英, 「新羅 竹杖寺址 五層石塔의 樣式과 特徵」, 『韓國古代史 探究』 14(2013), pp. 205-253.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에는 두 형식 모두 ‘모전석탑’으로 통칭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후자의 경우 塼塔外觀模倣石塔의 의미에서 ‘塼塔型 石塔’,² ‘石塔系 模塼石塔’,³ ‘變形 模塼石塔’,⁴ ‘일반형 전탑계석탑’⁵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두 이러한 석탑 형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어에 대해 명확히 약속되지 않은 상태이다.⁶ 분황사 석탑의 경우도 ‘塼塔系模塼石塔’⁷ ‘純粹 模塼石塔’,⁸ ‘조적형 전탑계석탑’,⁹ ‘積板石塔’¹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벽돌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벽돌쌓기(塼築)’한 형태적 특징을 반영한 ‘塼築型 石塔’이란 용어가 외관과 형식을 직관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견해¹¹가 발표되었는데 단순하면서도 매우 직접적인 용어라고 생각된다. 전축형 석탑의 외형적 특징은 쌓기 방식으로 인해 옥개석 상하면이 계단형으로 조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 밖에 탑신에 우주 표현이 생략된 점, 1층 탑신부의 감실 조성 등 기단부 형식보다는 주로 탑신부의 외형적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소형의 석재를 이용한 쌓기 방식은 옥개석 상면이 필연적으로 계단형으로 조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¹² 이 부분이 ‘塼築’의 외형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석형 석재로 계단형 옥개석을 표현한 석탑을 ‘전축형 석탑의 계단형 옥개석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의미로 ‘塼築模倣型 石塔’이라는

2 박흥국, 앞의 책, pp. 27-28.

3 문화재관리국, 『芬皇寺石塔 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92), pp. 14-16.

4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86.

5 김지현, 『新羅 石塔의 構造와 造營 研究』(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36.

6 ‘석탑계 모전석탑’이라는 용어는 모전석탑 역시 석탑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석탑’이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변형 모전석탑’과 ‘일반형 전탑계석탑’이란 용어는 ‘변형’과 ‘일반형’이라는 의미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기본 용어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탑형 석탑’이라는 용어는 전탑의 외관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옥개석이 계단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양식은 전탑의 외관과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이같은 석탑은 전탑의 모방에 그 원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황사 석탑에 기원을 두고 의성 탑리리 석탑에서 성립된 倣 模塼石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탑형 석탑’이란 용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신용철, 위의 논문(2006), p. 84)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전탑형 석탑’이라는 용어는 전탑이 모전석탑보다 선행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현재 전탑과 모전석탑의 선후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비추어 볼 때, ‘전탑형 석탑’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7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pp. 14-16.

8 신용철, 위의 논문, p. 86.

9 김지현, 위의 논문, p. 36.

10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 說’에 대한 문제 제기과 고찰』, 『건축역사연구』 20(2011), p. 46.

11 김준영, 『芬皇寺石塔 研究』(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2-3.

12 박경식, 앞의 논문(2013), p. 182.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¹³

이러한 전축모방형 석탑은 기단부의 형태에 따라 다시 가구식기단, 괴체석기단, 자연석기단 등의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모전석탑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특히 전축모방형 석탑이 나름의 양식적 변화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와같은 전축모방형 석탑의 기단부 형식변화는 일반형 석탑에서 보여지는 기단부 변화 양상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을 통해 신라 석탑의 양식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전축모방형 석탑에 대해서는 모전석탑의 카테고리 안에서 형식 분류에 관한 검토¹⁴가 연구의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개별 석탑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¹⁵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들 전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전축모방형 석탑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축모방형 석탑이라는 특수한 양식 석탑이 후대 석탑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전축모방형 석탑이 신라 석탑사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전축모방형 석탑의 현황과 특징

전축모방형 석탑의 세부 형식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크게 감실의

¹³ 분황사 석탑이 신라 석탑의 시원석탑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탑리리 석탑의 모델은 이 탑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전탑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박홍국, 앞의 책, pp. 174-17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Ⅵ(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pp. 125-126)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¹⁴ 박홍국, 위의 책, pp. 123-187; 안선우, 「慶北 北部地域의 模塼石塔 研究」, 『안동사학』 13(2009), pp. 1-54; 李善喆, 「韓國의 塼塔形 石塔 研究-義城塔里五層石塔을 中心으로-」(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pp. 15-46; 張忠植, 「新羅 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1984), pp. 145-169; 鄭永鎬, 앞의 논문, pp. 175-177; 秦弘燮, 앞의 논문(1967), pp. 1-21; 秦弘燮,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數例」, 『美術史學研究』 110(1971), pp. 2-7; 秦弘燮,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數例 補」, 『美術史學研究』 121·122(1974), pp. 27-33;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1978), pp. 96-109.

¹⁵ 張忠植, 앞의 논문(2002), pp. 17-28; 박홍국, 「경주 남산리 3층 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2010), pp. 143-165; 李順英, 앞의 논문(2013), pp. 205-253.

구성, 탑신부의 우주 유무, 기단부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왔다.¹⁶ 감실의 조성 여부와 탑신부 우주 유무는 각 석탑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크게 기단부 형식에 따라 가구식 기단, 괴체석기단, 자연석 기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가구식기단은 다시 단층기단과 이층기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축모방형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 모전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3기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신라시대 건립된 것은 9기로 본 장에서는 이들의 현황과 양식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표 1).

표 1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 현황

기단부 형식		석탑명	소재지	지정	비고
가구식기단	단층	탑리리 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금성면	국보 77호	
		빙산사지 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춘산면	보물 327호	
	이층	죽장사지 오층석탑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국보 130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시 해평면	보물 469호	
	?	낙상동 석탑	경북 상주시 낙상동	문화재자료127호	폐탑
괴체석기단		남산리 동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124호	
		서악리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보물 65호	
		남산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자연석기단		오야리 석탑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문화재자료93호	

¹⁶ 진홍섭 선생은 분황사계를 따르는 순수 모전탑의 부류를 제1류, 또 이와 같은 형식에서 이탈되어 옥개석을 보다 크게 절단하거나 기단 또는 탑신에 석괴를 그대로 이용한 모전형식을 제2류로 구분하였다(진홍섭, 앞의 논문(1967), pp. 1-21). 장충식 선생은 1층 탑신사방에 감실과 인왕을 배치하는 경우를 제Ⅰ형식, 1층 탑신의 남쪽면에만 감실을 모각하고 좌우에 인왕을 두었으나 기단은 거대한 방형석으로 대치되는 경우를 제Ⅱ형식, 1층 탑신에 전혀 장식을 두지 않으나 기단은 제Ⅱ형식과 같은 경우를 제Ⅲ형식, 1층 탑신 남쪽 면에만 감실을 조성하고 기단은 단층이면서 각부에 우주·탱주를 모각한 경우를 제Ⅳ형식, 탑신부는 Ⅳ형식과 거의 같으나 기단부는 이층기단의 전형석탑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Ⅴ형식으로 구분하였다(장충식, 앞의 논문(1984), pp. 6-19). 박홍국 선생은 입구를 별석으로 조성한 1층의 감실과 단층 면석조립기단을 갖추고 옥신에 우주, 탱주를 모각한 것을 제Ⅰ형식, 감실입구에 별석을 사용하지 않고 이층기단을 갖추고 있으나 옥신에 우주, 탱주가 없는 것을 제Ⅱ형식, 단층기단이지만 육면체의 거석으로 축조되었으며, 옥신 및 옥개석이 각 1석으로 된 것을 제Ⅲ형식, 자연암 위에 조성한 것을 제Ⅳ형식, 옥신 및 옥개석은 제Ⅲ형식과 같으나 소형이고 단층기단 위에 조성한 것을 제Ⅴ형식으로 구분하였다(박홍국, 앞의 책, pp. 30-33).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으로는 단층기단의 탐리리 오층석탑(도 1), 빙산사지 오층석탑¹⁷(도 2)과 이층기단의 죽장사지 오층석탑(도 3), 낙산리 삼층석탑(도 4) 그리고 상주 낙상동 폐탑¹⁸(도 5)이 해당된다. 기단부 형식을 알 수 없는 상주 낙상동 폐탑을 제외하면 단층과 이층이라는 기단 층수의 차이만 있을 뿐 가구식기단, 초층 탑신의 감실, 계단



도 1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7세기 중엽, 높이 9.6m)



도 2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9세기, 높이 8.2m)

¹⁷ 빙산사지 오층석탑은 그동안 탐리리 오층석탑을 모방하여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박경식, 『한국의 석탑』(학연문화사, 2008), pp. 469-472). 그러나 전체적인 비례감이나 석재의 짜임 등 결구방식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치석술을 엿볼 수 있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p. 166) 寺址에서 古式의 瓦片이 수습되고 있는 점(박홍국, 앞의 책, p. 176), 석탑에서 발견된 녹색 사리병의 제작시기를 9세기로 보고 있는 점(주영희, 『新羅 琉璃製舍利容器 研究』, 『東岳美術史學』 4(2003), pp. 180-181) 등을 종합해보면 통일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¹⁸ 상주 낙상동 폐탑은 상주 낙상천에서 사벌면 금흔리로 가는 석문정 고개 우측 산기슭 ‘절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잔존하는 부재는 대부분 옥개석인데, 옥개받침부와 지붕부분이 계단형으로 조성되었다.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옥개받침 부재 위로 지붕 부재를 끼우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상주박물관, 『상주지역 석탑 조사연구 보고서』(상주박물관, 2008), p. 24). 현재 남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옥개석의 크기가 170cm 정도이고 옥개석이 여러 개의 부재로 결구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규모가 큰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개석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의성과 구미에서 건립된 전축모방형 석탑들과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단 역시 가구식기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단층인지 이층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도 3 구미 죽장사지 오층석탑(8세기 중엽, 높이 11m)



도 4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8세기 말, 높이 8m)



도 5 상주 낙상동 석탑(8세기 말, 폭 1.7m)

형의 옥개석 낙수면 등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초층 탑신의 감실은 입구부의 조식 수법만 다를 뿐 모두 안쪽에 문짝을 달았던 지도리 구멍이 남아 있어 실제 문을 달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탑리리 오층석탑, 빙산사지 오층석탑, 죽장사지 오층석탑¹⁹⁾은 기단부를 별석으로 조성하였으나, 낙산리 삼층석탑은 판석형으로 조성하였다는 점²⁰⁾에서 차이가 있다. 낙산리 삼

¹⁹⁾ 죽장사지 오층석탑은 기단부를 별석으로 조성하였는데, 상층기단 받침 상면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 기단 면석 바깥으로 원기둥이 세워지는 특수한 기단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李順英, 앞의 논문(2013), pp. 220-223).

²⁰⁾ 낙산리 삼층석탑은 이층의 가구식기단으로 죽장사지 오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상층기단부 감실 안쪽으로 초층 탑신석이 깊게 결구된 점, 초층 탑신석이 탑신받침 위에 올려져 있지 않은 점, 받침부 안쪽의 거친 치석 상태가 노출된 점 등으로 인해 기단부는 후대에 판석형으로 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李順英, 앞의 논문(2013), pp. 230-246).

층석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석의 초층 탑신받침을 두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탑리리 석탑과 빙산사지 석탑은 1단으로 조성하였고 죽장사지 오층석탑은 각형 2단으로 조성하여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단의 층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축모방형 석탑의 대부분은 우주를 생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탑리리 오층석탑만은 각층 탑신석에 우주 및 탕주를 표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특히 1층 탑신부에는 우주를 별석으로 세우고 엔타시스 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옥개를 받치는 부분에는 주두까지 표현하는 등 목조건축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 목탑적 요소와 전탑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¹ 그러나 일반적으로 탑리리 석탑에 대해 평가되는 ‘목탑적 요소’는 탑리리 석탑의 계단형 옥개석에서 보듯이 이러한 외관을 가진 전탑이 존재하였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중국에서 ‘목탑을 충실히 모방한 전탑’이 찾아지는 것에서 보듯이, 결국 탑리리 석탑 역시 ‘목탑을 충실히 모방하였던 어느 전탑’의 외관을 ‘塊體의 석재로 충실히 모방한 석탑’²²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탑리리 석탑에서 가장 충실한 전탑 모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전축모방형 석탑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탑리리 석탑을 모방하여 죽장사지 오층석탑, 낙산동 삼층석탑, 빙산사지 오층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도 6 남산리 동삼층석탑(9세기 전반, 높이 7m)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은 경주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남산리 동삼층석탑(도 6), 서악리 삼층석탑(도 7), 용장계지곡 삼층석탑(도 8)이 해당된다. 이들은 기단부를 장방형의 塊石 8매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전축모방형 석탑의 다른 기단 형식은 일반형 석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기단 형식은 일반형 석탑에서는 보이지 않아 매우 특수한 양식의 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단부를 구성하는 석재는 중앙에 모눈을 맞추지 않고 엇물림 구조를 하고 있어 안정성을 높이고

²¹ 張忠植, 『新羅石塔研究』(일지사, 1987), p. 89.

²² 박홍국, 앞의 책, pp. 174-17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p. 125-126.



도 7 서악리 삼층석탑(9세기 후반, 높이 5m)



도 8 남산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9세기 말, 높이 4.8m)

있으며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1석으로 구성하였고²³ 우주는 모두 생략되었다. 이들 형식의 석탑은 모두 초층 탑신받침을 1매의 별석으로 구성한 것도 특징적인데 남산리 동삼층석탑,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은 각형 3단이고 서악리 삼층석탑만 각형 1단으로 구성하였다.²⁴ 또한 서악리 석탑에서만 초층 탑신 남면에 문비와 인왕상 2구가 조각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규모나 치석수법 등으로 볼 때, 남산리 동삼층석탑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

²³ 용장계 모전석탑은 2층 옥개 상면과 3층 옥개 하면에 공간을 두어 3층 탑신을 생략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신용철, 「신라 단층기단 석탑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7(2013), p. 27). 그러나 2층 옥개석 상면의 총 4단 중 마지막 네 번째 층급이 아래 3단의 층급보다 비교적 높게 구성되어 있어 3층의 옥개 하면과 함께 부재를 단일화하여 탑신부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생각된다.

²⁴ 서악리 삼층석탑은 기단 상면 석괴 중앙을 요(凹)자 모양으로 움푹하게 파내어서 탑신받침 하부 가운데를 철(凸)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볼록하게 튀어나도록 다듬어 맞춤으로서 이완 등 변형이 없도록 고려하여 특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 25).



도9 오야리 석탑(8세기 중후반, (복원)높이 2.5m)

며 서악리 석탑,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의 순서로 건립된 것²⁵으로 생각된다.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은 현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1기만 전하고 있다. 마을 뒤편의 산자락 중턱에 형산강이 내려다보이는 자연 암석 위에 건립되어 있으며 현재는 소광사라는 작은 사찰이 들어서 있다(도 9). 현재 3층 탑신부와 상륜부가 결실된 상태로 1층 탑신부에 감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이 계단형으로 조성되어 있다.²⁶ 오야리 석탑의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은 의성, 구미, 상주, 경주 등

경북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식기단 석탑 4기를 제외하고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 형식은 모두 경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은 탑리리 석탑에서 출발하여 인접지역에 영향을 준 결과 경북 북부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괴체석기단, 자연석기단과 같은 새로운 형식이 경주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은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에 있어 경주에서 변화와 창안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표 2).

²⁵ 박홍국, 앞의 책, p. 180; 박홍국, 앞의 논문, p. 163. 세 석탑 중 남산리 동삼층석탑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옥개석 받침부의 치석 상태도 매우 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악리 삼층석탑은 남산리 동삼층석탑보다 규모가 작고 1층 탑신부에 조성된 문비는 안쪽으로 한단 들어 문틀을 조성하고 가운데 음각선으로 문짝을 표현했을 뿐 문비 표현이 간략화된 모습이다. 문비 양쪽에 조각된 인왕상의 조각수법 역시 세밀함이 떨어지고, 신체 비례가 부자연스럽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 연대가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의 경우 치석 상태가 가장 정연하지 못하고, 3층 탑신부의 경우 2-3층 옥개석과 함께 조성하여 부재의 단일화 의도가 보이며, 기단부 역시 2단으로 쌓인 장방형의 괴체석 석재가 상하단의 규모가 다르게 조성된 점으로 보아 가장 나중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²⁶ 朴日薰, 『月城郡 吾也里 三層石塔』, 『考古美術』 46(1964), pp. 519-520.

표 2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 양식

연번	석탑명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비고
		형식	탑신받침	탑신	옥개		
1	탐리리 오층석탑	가구식 단층기단	별석 각형1단	우주○, 탕주○ 별석, 1층 감실	별석 계단형	노반	
2	빙산사지 오층석탑	가구식 단층기단	별석 각형1단	우주× 별석, 1층 감실	별석 계단형	노반	
3	죽장사지 오층석탑	가구식 이층기단	별석 각형2단	우주× 별석, 1층 감실	별석 계단형	노반	
4	낙산리 삼층석탑	가구식 이층기단	각형2단	우주× 별석, 1층 감실	별석 계단형	노반	
5	낙상동 석탑	?	?	?	별석 계단형		
6	남산리 동삼층석탑	괴체석 기단	별석 각형3단	우주×, 각 1석	각 1석 계단형	노반	
7	서악리 삼층석탑	괴체석 기단	별석 각형1단	우주×, 각 1석 1층 문비, 인왕상	각 1석 계단형	결실	
8	남산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	괴체석 기단	별석 각형3단	우주×, 각 1석	각 1석 계단형	노반 (복원)	
9	오야리 석탑	자연석 기단	별석 각형2단	2층만 우주○, 부분 별석, 1층 감실	부분별석 계단형	결실	

IV. 전개과정과 건립시기

앞 장에서 전축모방형 석탑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축모방형 석탑의 발생은 가구식기단인 탐리리 오층석탑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후 이를 모방하여 죽장사지 오층석탑, 낙산리 삼층석탑, 빙산사지 오층석탑 등이 건립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편이다. 즉, 전축모방형 석탑의 가구식기단은 탐리리 오층석탑에서 가장 먼저 채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우주가 생략된 탑신 및 계단형 옥개만 제외한다면 일반형 석탑과 같은 맥락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일반형 석탑과의 비교검토 연구가 어느 정도 있어 왔다.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은 탑신과 옥개가 각각 1석으로 부재가 단 일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기단부 역시 자연암석 또는 장방형의巨石을 사용하여 가구식기단에 비하면 축약되고 생략되는 느낌을 주고 있어 가구식기단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 석탑의 발생과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막연히 자연석기단이 괴체석기단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에 비해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오야리 석탑 1기만 남아 있어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괴체석기단, 자연석기단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경주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특수한 양식의 등장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 두 형식을 중심으로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건립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의 입지조건이 주목되는데, 남산리 동삼층석탑은



도 10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 입지 위치 (네이버 위성지도 인용)

남산 아래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²⁷ 서악리 삼층석탑은 선도산 능선 말단의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장계 지족 삼층석탑은 해발 380m 정도의 남산 정상부에 가까운 골짜기 안에 위치하고 있다(도 10). 규모나 치석수법 등으로 보아 남산리 동삼층석탑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후 서악리 삼층석탑, 용장계 지족 삼층석탑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입지는 건립시기에 따라 평지에서 점차 산지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²⁷ 그동안 남산리 동삼층석탑은 기단부에 팔부중상이 조각된 일반형 석탑인 남산리 서삼층석탑과 함께 동 시기에 다른 양식으로 세워진 '쌍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두 석탑의 형태와 규모, 동서 축, 지반 높이 차이, 석질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쌍탑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건립된 석탑이며 아울러 남산리 사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쌍탑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을 한다면, 창건 시기와 석탑의 원위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박홍국, 앞의 논문, pp. 161-163). 남산리사지의 두 석탑이 쌍탑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남산리 동삼층석탑이 원위치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까지 고고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만약 남산리사지의 석탑들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가정해도 석탑의 규모로 보아 그리 멀지 않은 주변의 사지에서 옮겨왔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산 아래의 평지라는 입지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괴체석기단의 발생에 대해 돌출된 암석을 이용하여 혹은 眺望이 좋은 峰頭에 建塔하는 일이 유행되어 평지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왔다.²⁸ 그러나 이처럼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거나, 峰頭에 건립하려는 의사의 영향을 받아 괴체석기단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입지조건에 따라 남산 정상부 근처에 위치한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가장 먼저 건립되고 이후 서악리 삼층석탑, 남산리 동삼층석탑의 순으로 점차 평지로 내려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산의 자연암반 기단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는 전축모방형 석탑, 즉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고 옥개 낙수면이 계단형으로 조성된 전축모방형 석탑이 남아 있어야 이에 영향을 받아 평지에서 재현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괴체석기단 가운데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가장 나중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과연 자연암반 기단 형식에서 영향을 받아 평지에서 재현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또한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세워진 남산자락 주변에는 이미 용장사지 삼층석탑과 같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단층기단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은 자연암반을 바로 기단으로 삼을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체석기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산 아래에 있는 남산리 동삼층석탑의 영향을 받아 건립되었을 것²⁹이라는 견해는 이같은 의문과 함께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주목되는 것이 장충식 선생의 다음과 같은 견해인데, “基壇 그 자체에 대한 無限積集 또는 功德積聚 등의 사상이 남산리 동삼층석탑과 서악리 삼층석탑과 같은 기단의 塊體形에서 출발하여 峰頭의 岩盤 전체를 기단으로 삼은 것과 같은 特例를 형성한 것으로, 괴체석기단 석탑의 기단이 平地 또는 山麓에서 출발하여 峰頭의 암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本質을 露呈시킨 과감한 발전 형식으로 봐야한다”³⁰는 것이다. 즉, 평지에서 괴체석기단이 출발하여 산 정상부 자연암반 기단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의 입지조건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평지에서 자연암반 전축모방형 석탑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려는 의도로 조영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는 전축모방형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이후 평지에서 괴체석으로 재현한 자연석기단을 원래의 자연암반 기

²⁸ 秦弘燮, 앞의 논문(1967), p. 18.

²⁹ 박흥국, 앞의 책, p. 180.

³⁰ 張忠植, 앞의 책, pp. 96-97.

단으로 구현하기 위해 입지를 산지로 옮겨갔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의 입지위치와 건립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자연암반 자체를 기단으로 하는 석탑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괴체석기단보다 선행하는 전축모방형 석탑으로 여겨지는 탑리리 석탑, 죽장사지 석탑, 낙산리 석탑 등의 가구식기단은 일반형 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연암반의 재현 의도로 생각되는 괴체석기단과는 발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괴체석기단은 기존에 보이지 않던 전혀 새로운 양식이지만 전축모방형 석탑이라는 특수양식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러한 특수한 기단이 등장하게 된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에 선행하는 모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이를 오야리 석탑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야리 석탑이 전축모방형 석탑 중 자연석기단을 갖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석탑은 그동안 신라말³¹ 또는 9세기 후반경³²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현존 1기만 남아 있는 형식이므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양식이나 건립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된 바 없다. 이에 오야리 석탑의 양식 특징을 살펴 오야리 석탑의 건립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야리 석탑은 기단으로 삼은 거대한 암석 상면을 약간의 치석만 했을 뿐 거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이 위로 각형 2단의 탑신 받침을 2매의 석재로 조성하여 올려놓았다. 탑신받침석 하단에 그랭이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자연석을 기단으로 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층 탑신은 1석으로 조성하였고 남면에 감실을 마련하였는데 탑신받침 상면이 감실의 하단이 되도록 치석하였다. 탑신받침 상면에는 문지방을 돌출시켜 조성하였고, 감실 입구 위에는 이와 마주보는 형태로 문뎃테를 돌출시켜 표현하였다. 문지방과 문뎃테의 위아래에는 지름 5.5cm 깊이 3cm 크기의 지도리 구멍이 남아 있는데 구멍 안쪽에 사용 흔적이 남아 있고 문뎃테의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치석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문짜를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실 조성은 괴체석기단에 비해 건축적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층 옥개석은 4매의 석재를 결구하여 조성하였는데, 옥개받침은 각형 1단으로만 층급을 표현하였고, 전각부는 다른 전축모방형 석탑이 짧고 수평하게 조성된 것과는 달리

³¹ 朴日薰, 앞의 논문, p. 520.

³² 박흥국, 앞의 책, p. 184.

일반형 석탑처럼 살짝 반전되어 있다. 전각 모서리에는 상하로 관통된 풍경공이 뚫려 있고 옥개 상면은 각형 3단의 층급을 표현하였다. 2층 탑신받침은 각형 2단으로 2층 탑신과 1석으로 구성하였으며, 1층 탑신에는 우주가 모각되지 않은 반면, 2층 탑신에는 우주가 뚜렷하게 모각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와 면석 간의 깊이가 하부는 3.5cm, 상부는 5cm로 차이가 있으며, 우주의 상하폭도 11.5cm, 12.5cm로 1cm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래에서 올려보아야 하는 입지조건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큰 上促下寬의 인상을 받는다.³³ 대부분의 석탑은 각 층별로 우주의 표현이 통일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오야리 석탑은 1층과 2층 탑신의 우주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2층 옥개석은 약간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1층 옥개석과 마찬가지로 4매로 결구하였으며 옥개받침은 각형 1단으로, 낙수면 상면은 각형 3단으로 층급을 표현하였다. 3층 옥개석은 1매로 구성하였는데, 옥개받침은 각형 1단, 낙수면은 각형 4단으로 층급을 표현하였다. 3층 옥개 상면에는 지름 20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남아 있으나³⁴ 상륜부는 모두 남아 있지 않다.

오야리 석탑에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1층 탑신의 감실이다(도 11). 석탑에 감실이 등장하는 것은 분황사 석탑을 시작으로 이후 탑리리 석탑, 죽장사지 석탑, 낙산리 석탑, 빙산사지 석탑 등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에서는 모두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 산해리 모전석탑, 안동 범흥사지 칠층전탑,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안동 조탑동 오층전탑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전탑 및 모전석탑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악리 삼층석탑은 다른 일반형석탑에 비해 깊이감있게 안쪽으로 문비를 조성하고 문고리를 달았던 흔적도 남아 있지만, 감실을 조성하진 않았다. 이에 비해 오야리 석탑은 감실을 조성하고 입구 하단에 문지방과 상단에 문둔테를 돌출시키고 문짝을 달았던 구멍까지 남아 있어 괴체석기단인 서악리 삼층석탑보다 감실 조성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문둔테와 문지방이 외부로 돌출되었다는 것은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감실의 공간도 작아지게 되자 문짝을 외부에 설치하여 내부 불상 봉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에 비해 규모가 작아지면



도 11 오야리 석탑 1층탑신 감실

³³ 박흥국, 앞의 책, p. 184.

³⁴ 林日薰, 앞의 논문, p.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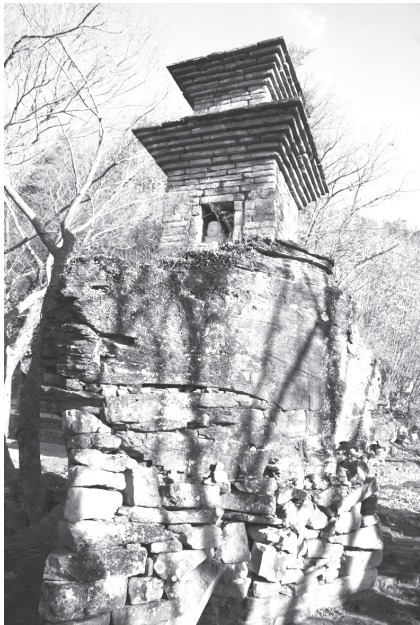
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으로 생각되며, 감실이 조성되지 않은 괴체석기단 석탑에 비해 감실의 공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 수법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층 탑신부 우주의 상하폭이 1cm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각적으로 커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흘림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야리 석탑 탑신의 전체 크기로 볼 때, 우주 상하폭의 이러한 차이는 시각적으로도 구분될 만한 차이로 민흘림 기법이 뚜렷이 반영된 것이다. 대부분 신라석탑이 민흘림을 보이고 있으나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된 예는 드문 편인데, 탑리리 오층석탑과 같이 목조건축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석탑에서 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³⁵ 또한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석탑 전체를 대부분 별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과 달리 괴체석기단 석탑들은 탑신부 구성에 있어 탑신과 옥개를 각각 1석으로 조성하여 부재를 단일화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오야리 석탑은 1층 옥개와 2층 옥개를 각각 4석으로 결구하고 있어 별석 조영 의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목조건축적 요소의 뚜렷한 반영, 별석 조영 의도, 1층

탑신부의 감실 조성 수법 등을 볼 때,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보다 앞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자연석기단을 평지에 재현한 것이 남산리 동삼층석탑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야리 석탑은 탑신부만 놓고 본다면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들에 비해 소형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연석기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석탑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모전 석탑들로 영양 삼지동 석탑, 안동 대사동 석탑 등이 해당된다.

삼지동 석탑은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대암이라는 사찰 내에 위치하



도 12 영양 삼지동 석탑(8세기 중엽, 높이 6.38m)

³⁵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의 기단부, 탑신부의 우주 및 탱주에서도 강한 민흘림 기법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 목조건축 요소에 대한 충실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李順英, 『蔚州 青松寺址 三層石塔의 建立時期와 意義』, 『新羅文化』 39(2012), pp. 190-191).

고 있다. 현재 석탑은 높이 3.1m의 길쭉한 자연암반 위에 올려져 있는데 경사진 절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된다(도 12). 암반 하부는 암석의 결에 따라 공간이 벌어지자 석탑재와 같이 석재를 가공하여 채워 넣었다. 현재 탑신은 2층까지만 남아 있는데, 잔존 형태와 체감을 등을 고려하면 원래 3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으며, 잔존 높이는 약 3.14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1층 탑신은 1단의 받침 위에 올려져 있으며 남면에는 감실이 조성되어 있다. 1962년 석탑 수리 도중 감실의 바닥을 정리하다가 매몰되어 있었던 신라시대로 추정³⁶되는 작은 불상 6구를 발견하였으며, 그 중 2구는 다시 감실 바닥에 넣어서 石灰로 봉해 버렸고 다른 4구는 암자 법당에 모셔두었다고 전하는데³⁷ 현재 절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³⁸ 감실 입구는 별다른 조식없이 양

쪽에 장방형의 석재로 문틀을 세우고 위에 상인방을 두었는데, 문틀석과 상인방석 사이에 끼워져 있는 작은 석재 2개는 1999년 해체 보수 당시 끼워 넣은 것이다. 감실 입구의 조성 방법은 인근 현리 모전석탑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석재는 비교적 가공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외면에는 회칠하였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안동 대사동 석탑은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의 길안천이 휘돌아가는 모습이 잘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 절벽의 좁은 대지에 있는 자연석 위에 올려져 있어 영양 삼지동 석탑과 동일한 입지 조건을 보인다(도 13). 현재 탑은 1층만 남아 있으나 3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높이가 2m



도 13 안동 대사동 석탑(통일신라말-고려 초, 높이 4m)

³⁶ 현재 불상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搬出된 佛像은 모두 二段으로 된 圓形臺座 위에 立佛로 鑄造한 것이며 全體高는 各各 4.7cm, 4.5cm, 3.6cm, 3.3cm이다. 諸 佛像의 表面은 모두 美麗치 못하나 造形手法上의 재미나는 것도 있다. 四軀中 二軀는 光背가 있는데 하나는 透彫로된 火炎紋光背이고 또 하나는 船形金銅板에다 綠邊에 放射線狀의 線을 押入하여하여 葉模樣을 나타내 佛像은 모두 厚肉의 肉髻가 있고 個中에는 法衣紋이 圓形으로 나타낸 것도 있으며 手印等 全體의 外觀으로 볼 때 古形을 엿보이게 하는 것도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尹容鎭, 『慶北 英陽郡의 塔像(-)』, 『考古美術』 40(1963), p. 465).

³⁷ 尹容鎭, 위의 논문, p. 465.

³⁸ 申大鉉, 『英陽 三池洞 模塼三層石塔 舍利莊嚴 小攷』, 『文化史學』 11·12·13(1999), p. 456.

남짓되는 것으로 보아 원래도 소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탑을 구성하는 석탑재는 정교하게 가공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탑재의 크기는 고르지 못한 편이다. 자연암반 위로 크기가 다른 석재들을 여러 단 쌓아 탑신받침을 비교적 높게 조성하였는데, 이는 기단으로 삼은 자연석 상면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수평을 맞추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탑신받침에서 안쪽으로 약 15cm정도 들어서 탑신을 올렸는데, 탑신의 높이는 약 50cm로 조성하였다. 옥개받침은 4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석재 사이의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편이고 상면은 거의 무너져서 원형을 알 수 없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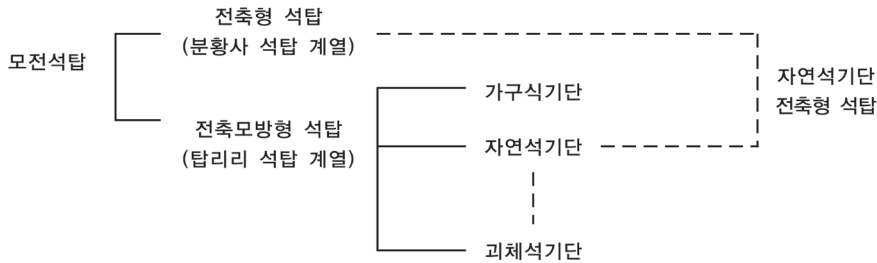
삼지동 석탑, 대사동 석탑과 오야리 석탑은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점과 강가를 내려다보는 산 중턱의 절벽에 입지하고 있는 점 등 입지 조건에서 공통 요소를 갖고 있고, 모전석탑 계열이라는 점에서 오야리 석탑의 자연석기단은 이들과 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야리 석탑의 탑신부는 벽돌형 석재를 전축하는 방식이 아닌 판석형의 석재를 이용하고 있어 전축모방형 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야리 석탑은 자연석기단 형식과 전축모방형 석탑 탑신부 형식이 결합되어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오야리 석탑의 건립 위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탑과 모전석탑은 형식에 상관없이 주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는데 영양지역에서는 석재를 전형으로 가공한 전축형 석탑이 다수 건립되었고 구미, 의성 등에서는 가구식기단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모전석탑의 발생 루트를 보면, 영양-안동-경주와 의성-구미-경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신라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당시 수도인 경주에서 무역항이었던 경기도 남양만의 당은포에 이르는 교통로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었는데, 경주-건천-영천-대구-선산-상주-함창-계림령-충주-여주-이천-당은포의 길과, 경주-영천-대구-군위-의성-안동-영주-죽령-단양-충주-여주-이천-당은포의 길이다.³⁹ 신라의 불교 유입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위의 교통로를 통해 경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화의 전파가 반드시 수도에서 지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전축모방형 석탑은 탑리리 오층석탑에서 시작되어 인접지역으로 전파되며 나름의 계보를 만들어가며 발달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석탑은 당시 교통로를 따라 지방에 해당하던 경북 북부 지역에서 수도인 경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야리 석탑이 위치한 경주

³⁹ 강우방, 신용철, 『탑』(술출판사, 2003), pp. 127-130.

시 천북면은 경북 북부에서 영천을 거쳐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다.⁴⁰ 의성, 구미지역의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과 영양, 안동지역의 자연석기단 전축형 석탑 형식이 경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서 경주 중심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에서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으로 발전하기 전 두 석탑 형식의 접점이 바로 오야리 석탑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오야리 석탑에서 자연석기단을 채택한 점, 탑신부는 전축모방형 석탑의 석재 가공 수법을 따른 점과 공통적으로 모전석탑 계열이라는 점에서 두 탑과 양식이 혼용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3).

표 3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 전개과정



결론적으로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가구식기단은 일반형 석탑 기단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탑리리 오층석탑을 시작으로 의성, 구미 등에서 건립되게 된다. 그리고 기존 견해와 달리 괴체석기단보다 자연석기단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자연석기단이 영양, 안동에서 건립된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는 전축형 석탑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탑신부는 전축모방형 석탑의 형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석기단 형식이 경북 북부에서 경주 중심으로 들어왔으며 자연석기단을 평지에서 재현하고자 괴체석기단으로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야리 석탑은 가구식기단과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축모방형 석탑의 전개과정과 함께 이들의 건립시기도 살펴보면, 가구식기단

⁴⁰ 천북면 오야리와 가까운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은 동시대 신라석탑에서 보이지 않는 13층의 층수와 밀침식 구조, 별석 결구 및 강한 목조건축적 요소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라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백제양식 석탑인 전북 김제 귀신사 석탑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순영, 「慶州 淨惠寺址十三層石塔의 樣式과 特徵」, 『동양미술사학』 13(2012), pp. 113-114). 이는 8세기 후반~9세기 초에 신라 지역에 백제양식석탑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수한 이형석탑으로 정혜사지 석탑 역시 경북 북부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축모방형 석탑의 건립시기는 탑리리 오층석탑은 7세기 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⁴¹으로 전축모방형 석탑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죽장사지 오층석탑은 8세기 중엽,⁴² 낙산동 삼층석탑은 8세기 중엽~8세기 말,⁴³ 병산사지 오층석탑은 9세기⁴⁴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자연석기단과 괴체석기단보다 먼저 건립된 것으로 전축모방형 석탑 중 가장 먼저 등장하였으며 의성, 구미를 중심으로 나뭇의 양식발전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석기단인 오야리 석탑의 건립시기는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괴체석기단 석탑보다 앞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전개 양상과 건립시기를 살피기 위해 영양 삼지동 석탑과 건립시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삼지동 석탑의 건립시기는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막연히 고려시대로 추정해 왔다.⁴⁵ 삼지동 석탑은 1999년 수리공사 시 2층 옥개석에서 석재 사리함이 발견되었는데, 사리함에서 사리 1~2과를 비롯하여 사리병, 패각류, 지류편, 금박편 등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석재 사리함과 사리병 등의 형태로 보아 사리장엄의 조성시기가 8~9세기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⁴⁶ 특히 사리병은 얇은 기벽과 녹색의 색조를 띠고 있는데 경부는 짧고 동체부가 원에 가까울 정도로 만곡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 내 사리병과 유사하다는 점⁴⁷에서 중요 편년 자료가 되고 있다.

7세기에 경주에서 최초로 건립된 분황사 석탑을 생각한다면 여타의 전축형 석탑의 건립시기 역시 막연히 고려시대로 하강될 이유가 없다. 또한 삼지동 석탑 인근의 전축형

41 의성 탑리리 석탑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647년설(고유섭 선생), 7세기 전반설(황수영 선생), 7세기 후반설(박홍국, 앞의 책, p. 171), 700년을 전후한 시기(장충식, 앞의 책, p. 90)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탑리리 석탑에서 보이는 정림사지 석탑 양식으로 보아 백제석탑 양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감안하여 660~670년으로 보는 견해(채무기, 『7세기 석탑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99)와 정림사지 석탑의 건립시기 하한이 660년일 뿐,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으므로 탑리리 석탑과의 선후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李善喆, 앞의 학위논문, p. 10).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탑리리 오층석탑 간의 영향관계 및 선후관계가 명확치 못하다고 하여도, 탑리리 오층석탑에서 보여지는 양식적 특징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전후한 시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백제 멸망 660년에서 감은사지 석탑이 건립되는 682년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신용철, 『新羅石塔의 발생과 成立科程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19.4(2010), pp. 43-44). 이를 종합해 보면, 탑리리 오층석탑의 건립 상한은 7세기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李順英, 앞의 논문(2013), p. 242.

43 李順英, 위의 논문(2013), p. 246.

4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 166.

45 안동 대사동 석탑은 현재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건립시기 추정이 어려우므로 삼지동 석탑의 건립시기를 통해 오야리 석탑과 비교하고자 한다.

46 申大鉉, 앞의 논문, pp. 457-461.

47 申大鉉, 위의 논문, pp. 458-459; 주영희, 앞의 논문, p. 180.

석탑들도 기존의 고려시대 건립설과는 달리 영양 산해리 석탑은 8세기 후반~9세기, 영양 현이동 석탑은 8세기 중엽⁴⁸ 등 통일신라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삼지동 석탑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내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의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한다면, 삼지동 석탑 역시 8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오야리 석탑보다 선행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야리 석탑이 삼지동 석탑의 기단부 형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오야리 석탑의 건립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1층에 조성된 감실의 건축적 의장의 표현이다. 이처럼 신라 석탑에서 적극적으로 건축적 요소를 표현한 경우는 흔치 않아, 이로 인해 오야리 석탑의 돌출된 문돈테 모습이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감실 입구 하단에도 신방석이 돌출되어 있고, 고선사지 삼층석탑 문비 하단에도 신방석이 모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건축적 요소의 표현은 신라 고식 석탑에서부터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오야리 석탑을 예외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돈테의 적극적인 표현은 감실 입구의 문짝 위치를 내부에 두는 것과 외부에 두는 것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오야리 석탑의 문지방석 위에 방형 1단의 신방석 자리가 표현되어 있고 그 위로 지도리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야리 석탑의 문돈테는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문짝을 외부에서 여닫을 수 있게끔 만들면서 나타난 적극적인 건축적 요소의 표현인 것으로 생각되며 앞선 대형의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들보다 후대에 건립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오야리 석탑의 양식 특징, 즉, 1층 탑신부의 감실에서 보이는 뚜렷한 목조건축적 요소, 별석 조영 방식, 치석수법 등은 9세기 이전 석탑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8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삼지동 석탑의 자연석기단의 영향관계로 볼 때, 오야리 석탑은 8세기 중후반 경에는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괴체석기단은 남산리 동삼층석탑이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9세기 전반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⁴⁹되고 있고 전축모방형 석탑 가운데 가장 건축적 요소의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기단부가 자연암반을 평지에서의 재현이라는 의도로 볼 때, 오야리 석탑보다 후대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악리 삼층석탑과 용장계 지곡 삼층석

⁴⁸ 박홍국, 앞의 책, p. 160.

⁴⁹ 이에 대해 8세기 전반에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박홍국, 앞의 논문, p. 163), 정황적인 증거로 추정할 것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 현재 남산리 동삼층석탑의 각형 3단의 탑신받침과 옥개석의 치석수법 등으로 보아 9세기 전반 경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탑은 치석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남산리 동삼층석탑보다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괴체석기단은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의 양식변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생각되며, 남산리 동삼층석탑 이후 서악리 삼층석탑과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9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IV. 후대에 끼친 영향 및 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은 나름의 양식적 변화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은 전축모방형 석탑의 양식변화와 전개과정을 살피는데 있어 매우 주목되는 이형석탑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3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야외에 계단형 옥개석이 각각 1점씩 확인되고 있어 경주에 괴체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현재보다 더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 14-15).⁵⁰ 이밖에도 경주 석장사지 출토 탑상문전(도 16), 울산 농소사지 출토 탑상문전, 청도 불령사 전탑 탑상문전에 삼층탑이 시문되어 있는데 단층기단에 계단형 옥개석을 갖춘 탑과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계단형 옥개석으로 보아 전축모방형 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도 14 국립경주박물관 내 전축모방형 석탑 옥개석



도 15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전축모방형 석탑 옥개석

⁵⁰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위치한 계단형 옥개석 1점의 경우 계단형 층급부분과 연결되어 탑신부의 일부가 함께 조성되어 있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의 2-3층 옥개석과 마찬가지로 옥개부와 함께 부재를 단일화하여 탑신부를 조성하려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야외에 위치한 옥개석은 상부에 찰주공으로 추정되는 원형의 구멍이 남아 있어 최상층 옥개석으로 추정된다.



도 16 경주 석장사지 출토 탑상문전(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는 석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괴체석기단의 경우 평지에서 자연암반을 재현하려는 의도로 나타났지만, 석재를 가공하여 자연석 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원래 의도대로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는 합리적인 방법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괴체석기단은 산지의 자연암반으로 방향



도 17 경주 남산 비파곡 2사지 삼층석탑(9세기 후반, 높이 2.91m)

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방형의 단층기단이 표현된 경우 별다른 조식이 없어 괴체석기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전탑의 전돌문양으로 전축모방형 석탑이 시문된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현재 남아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이 이형석탑으로서 독자적인 계보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형양식은 이후 건립되

을 옮기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괴체석기단의 입지조건 변화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남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괴체석기단은 입지조건 상 더 이상 자연암반을 재현할 필요가 없게 되었 것이고, 과감하게 자연암반 자체를 기단으로 삼는 석탑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⁵¹ 즉, 이처럼 자연 암반을 기단으로 삼는 형식은 경주 남산의 특수성과 더불어 이러한 기단 형식의 원형이 자연암반에서 출발했다는 강한 인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생각된다. 이후 남산에서 나타나는 자연석기단 석탑으로는 비파곡 2사지 삼층석탑(도

⁵¹ 자연 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탑신을 올리는 형식이 등장한 배경으로 기단 자체를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수미산으로 보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단층기단 석탑의 의미를 극대화한 조영으로 이는 경주 남산이라는 특수성과 결합하여 등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신용철, 앞의 논문(2013), pp. 24-26).



도 18 경주 남산 지암곡 3사지 삼층석탑(9세기 후반, 높이 3.88m)

17), 지암곡 3사지 삼층석탑(도 18)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연석 상면을 치석하여 탑신이 놓일 자리를 마련한 후 각형 2단의 별석 탑신받침⁵²을 놓고 탑신부를 올렸다. 그러나 이들 석탑에서는 전축모방형 석탑과 달리 일반형 석탑의 탑신부가 올려졌는데, 이는 남산에 건립된 석탑 양식으로는 전축모방형 석탑이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산에는 이미 자연암반 위에 조성된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같은 초기 단층기단 석탑이 건립⁵³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아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석탑을 건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단형 옥개석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 이후로는 경주

표 4 고려 전축모방형 석탑 양식

연번	석탑명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비고
		형식	탑신받침	탑신	옥개		
1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	가구식 단층 기단	각형 1단	우주× 각 1석, 1층 감실	각 1석 계단형	결실	
2	안동 하리동 삼층 석탑	지대석 기단	생략	우주× 각 1석	각 1석 계단형	노반?	
3	화순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지대석 기단	생략	1층만 우주 각 1석	1층만 2매, 계단형	결실	
4	화순 운주사 입구 석탑	지대석 기단	각형 2단	우주× 각 1석	각 1석 계단형	원형 노반	
5	청원 영하리사지 석탑	지대석 기단	-	-	각 1석 계단형	결실	기단 추정

⁵² 탑신받침은 신라 석탑에서는 감은사지 석탑에서부터 갑석 상면에 각형 2단으로 조출되는 형식이 기본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와 달리 전축모방형 석탑들은 별석 탑신받침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전축모방형 석탑의 마지막 단계인 괴체석기단이 남산으로 입지를 옮겨간 후 남산에 건립된 자연석기단 석탑들이 별석 탑신받침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석기단 석탑의 발생과 별석 탑신받침의 사용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별석 탑신받침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순영,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 32(2014), pp. 389-432.

⁵³ 9세기 초반경 이증기단 석탑에서 하대갑석은 ‘L’자형으로 된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초기 단층기단 석탑은 이증기단 석탑에서 하대갑석에 해당하는 지대석을 역시 ‘L’자형 판석 4매로 조성하고 동시에 지면을 하층기단 면석으로 삼는 독특한 발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용철, 앞의 논문(2013), p. 126).

남산에서는 더이상 건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라 석탑 양식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은 괴체석기단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 지대석과 같이 방형 1매의 석재로 단층기단을 갖춘 형식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기단부가 방형의 괴체석 4매로 구성하던 것이 1매의 지대석처럼 간략화되면서 석탑의 규모 역시 前代에 비해 소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4). 그리고 신라 전축모방형 석탑이 경북 북부 및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것과 달리 경상도 지역을 벗어나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건립된다.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도 19),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도 20), 화순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도 21), 운주사 입구 석탑(도 22), 청원 영하리사지 석탑(도 23) 등 5기 정도가 확인된다.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대석기단 형식으로 별도의 탑신받침 없이 1매의 지대석 위에 바로 탑신을 올렸다. 이 가운데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은 자연석 여러 매를 불규칙하게 쌓고 그 위로 지대석을 올리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처럼 지대석 하단에 여러 매의 자연석을 쌓은 것이 괴체석기단이 자연암반을 재현하려던 의도



도 19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고려시대, 높이 3.7m)



도 20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고려시대, 높이 3.25m)



도 21 화순 운주사 대웅전 앞 다층석탑 오층석탑(고려시대, 높이 3.23m)



도 22 화순 운주사 입구 석탑(고려시대)



도 23 청원 영하리사지 석탑(고려시대)

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주와 그리 멀지 않은 경상도 지역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괴체석기단 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만 가구식 단층기단을 보이고 있는데 1층 탑신 4면에는 장방형의 얇은 감실이 조성되어 있어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층과 5층 탑신이 결실되었는데, 탑신부에 우주가 생략된 것과 옥개석이 계단형으로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등 고려시대 일반형 석탑과 비슷한 치석수법과 체감울을 보이고 있어 전축모방형 석탑의 양식과 동시기 석탑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화순 운주사에는 2기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확인되는데, 운주사에는 일반형 석탑 외에도 다양한 양식의 이형석탑들이 건립되어 있어 전축모방형 석탑 양식도 이러한 운주사 건립 의도에 따라 이형석탑의 하나로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청원 영하리사지 석탑은 계단형 옥개석 3매와 기타 부

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너져 있어 기단부 원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쌓여있는 옥개석 옆에 놓인 방형 1매의 부재로 보아 안동 하리동 석탑과 같은 지대석 기단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보면 전축모방형 석탑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건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단부는 더욱 간략화되고 탑신받침도 생략되었으나 옥개석을 계단형으로 조성하는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성 읍내리 오층석탑과 같이 가구식기단 형식도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축모방형 석탑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가구식기단 형식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전석탑의 범주에서 출발한 전축모방형 석탑은 다양한 기단부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나름의 양식 변화를 이루며 꾸준히 계승되어 왔다는 점이 신라 석탑사에 있어 가장 큰 미술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라 석탑은 양식의 정립과 함께 부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별석으로 조립하던 부재를 일체화하고 시원양식에서 도드라지게 표현되던 목조건축적 요소는 점차 생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이후 정착한 전형양식이 신라 석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신라 석탑은 이러한 동일 양식 석탑의 반복 건립 속에서도 이른바 ‘異型石塔’으로 불리는 특수한 양식을 보이는 석탑들도 건립되었는데 대부분 소수로 건립되어 양식 계보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이형석탑들이 소수로 건립되었지만 특수한 양식과 의장으로 인해 신라 석탑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형석탑을 하나의 큰 범주로 삼는다면 가장 큰 양식적 특징은 별석 결구 방식 및 뚜렷한 목조건축적 요소를 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축모방형 석탑 역시 이러한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구식기단인 탐리리 오층석탑은 신라 석탑의 시원양식임과 동시에 전축모방형 석탑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 전형 양식과 전축모방형이라는 두 계보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라 석탑의 양식 발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계단형 옥개석을 제외하고 별석 결구 방식, 초층 탑신의 결구법, 민흘림 기법 등은 분명 백제식 석탑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이후 전형양식인 감은사지 삼층석탑, 고선사지 삼층석탑 등에 영향을 준 것⁵⁴과 동시에 탐리리 오층석탑의 양식이 죽장사지 오층석탑, 낙산리 삼층석탑 등 전축모방형 석탑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라 석탑의 양식 발전과 계보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⁵⁴ 신용철, 앞의 논문(2010), pp. 43-51.

마지막으로 전형양식 석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주에서 전축모방형 석탑이 계승, 발전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신라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축모방형 석탑은 이형석탑으로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양식의 출현이 이후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이형 석탑의 발생과 계승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신라 석탑 건립에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석탑은 큰 양식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신라 석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형양식을 가진 석탑들이다. 일반형 석탑에 비하면 소수로 건립되었으나 신라 석탑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모전석탑 역시 이형석탑의 한 줄기로서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전축모방형 석탑은 나름 다양한 양식변화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축모방형 석탑에 주목하여 특징과 전개과정,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축모방형 석탑은 기단부 형식에 따라 가구식기단, 괴체석기단, 자연석기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식기단은 다시 단층기단과 이층기단으로 세분된다. 가구식기단은 계단형 낙수면, 초층 탑신의 감실 등을 공통점으로 일반형 석탑의 기단부와 같은 기단결구법을 보이며 탑신의 우주 유무, 기단의 단층, 이층의 차이만 있다. 괴체석기단은 경주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서악리 삼층석탑의 1층 탑신 문비 조성을 제외하면 괴체석으로 쌓은 기단, 우주를 생략한 탑신, 계단형 낙수면 등이 공통점이다. 자연석기단은 자연암반 위에 탑신부를 조성한 것으로 현재 오야리 석탑만 남아 있다. 한편, 이들의 분포 현황을 보면 의성, 구미, 경주 등 경북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은 경주에서만 보이고 있어 특징적이다.

전축모방형 석탑 가운데 가구식기단이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의 선후관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괴체석기단은 그동안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는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실제 남아 있는 탑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 괴체석기단이 자연암반의 평지에서 재현이라면 자연암반 위에 전탑형 탑신부를 올린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그 모델이 오야리 석탑으로 생각된다. 오야리 석탑은 자연암반 기단, 1층 탑신의 감실 조성 수법, 2층 탑신의 민흘림 기법의 우주 표현, 별석으로 조성된 부재 등을 볼 때, 괴체석기단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석기단은 영양 삼지동 석탑, 안동 대사동 석탑 등과 같은 자연암반기단 모전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들이 건립된 영양, 안동, 의성, 구미 등은 신라 교통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를 따라 이러한 석탑 양식이 경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북부 길목에 해당하는 오야리 석탑에서 자연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괴체석기단이 평지에서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의 건립시기를 살펴보면 탑리리 석탑 이후 8세기 중후반 가구식기단 전축모방형 석탑이 건립되었으며, 오야리 석탑은 8세기 중후반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괴체석기단 중 가장 먼저 건립된 남산리 동삼층 석탑이 9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축모방형 석탑은 가구식기단, 자연석기단, 괴체석기단의 순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축모방형 석탑은 이후 건립되는 석탑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괴체석기단의 경우 남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석기단 석탑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괴체석기단이 원래부터 자연암반의 재현이라는 의도가 분명한 석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낮은 지대석기단을 갖춘 소형의 전축모방형 석탑도 꾸준히 건립되고 있어 양식의 계승이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 시원 석탑인 탑리리 오층석탑은 신라 전형석탑과 전축모방형 석탑이라는 두 계보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전형 양식 석탑만 건립되던 경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양식인 전축모방형 석탑의 등장은 신라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형석탑의 발생과 전개라는 측면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의 출현이 이후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이형석탑의 전개와 양식 계승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 이형석탑(異型石塔, unique style stone pagoda), 모전석탑(模塼石塔, brick structure type stone pagoda), 전축모방형 석탑(塼築模倣型石塔, imitation brick structure type stone pagoda), 기단부(基壇部, stylobate), 경주 남산(慶州 南山, Mt. Namsan in Gyeongju)

■ 투고일 2014년 8월 8일 | 심사개시일 2014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0월 14일 ■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우방, 신용철, 『탑』, 솔출판사, 20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V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문화재관리국, 『芬皇寺石塔 實測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92.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상주박물관, 『상주지역 석탑 조사연구 보고서』, 상주박물관, 2008.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2. 학위논문

- 김준영, 「芬皇寺石塔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지현, 「新羅 石塔의 構造와 造營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李善喆, 「韓國의 博塔形 石塔 研究-義城塔里五層石塔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채무기, 「7세기 석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 논문

-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41, 2012, pp. 163-194.
朴日蕙, 「月城郡 吾也里 三層石塔」, 『考古美術』 46, 1964, pp. 519-520.
박홍국, 「경주 남산리 3층 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2010, pp. 143-165.
申大鉉, 「英陽 三池洞 模塼三層石塔 舍利莊嚴 小攷」, 『文化史學』 11·12·13, 1999, pp. 453-463.
신용철, 「新羅石塔의 발생과 成立科程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19.4, 2010, pp. 35-54.
_____, 「신라 단층기단 석탑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7, 2013, pp. 119-151.
안선우, 「慶北 北部地域의 模塼石塔 研究」, 『안동사학』 13, 2009, pp. 1-54.
尹容鎭, 「慶北 英陽郡의 塔像(一)」, 『考古美術』 40, 1963, pp. 10-14.
李順英, 「蔚州 青松寺址 三層石塔의 建立時期와 意義」, 『新羅文化』 39, 2012, pp. 183-206.
_____, 「慶州 淨惠寺址 十三層石塔의 樣式과 特徵」, 『동악미술사학』 13, 2012, pp. 97-118.
_____, 「新羅 竹杖寺址 五層石塔의 樣式과 特徵」, 『韓國古代史探究』 14, 2013, pp. 205-253.
_____,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 32, 2014, pp. 389-432.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說’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 20, 2011, pp. 39-54.

張忠植, 「新羅 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 1984, pp. 145-169.

_____, 「善山 竹杖寺 模塼石塔의 復元 問題」, 『東岳美術史學』 3, 2002, pp. 17-28.

鄭永鎬, 「模塼石塔의 類型 : 統一新羅의 代表作을 中心으로」, 『월간중앙』 29, 1970, pp. 175-177.

주영희, 「新羅 琉璃製舍利容器 研究」, 『東岳美術史學』 4, 2003, pp. 171-186.

秦弘燮, 「韓國模塼石塔의 類型」, 『文化財』 3, 1967, pp. 1-21.

_____,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數例」, 『美術史學研究』 110, 1971, pp. 2-7.

_____, 「所謂 方壇式特殊形式의 石塔數例 補」, 『美術史學研究』 121·122, 1974, pp. 27-33.

_____,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 1978, pp. 96-109.

국문초록

신라 석탑은 일반형 석탑과는 별도로 모전석탑 역시 나름의 양식적 계보를 형성하며 전개되었다. 모전석탑은 다시 형태에 따라 '전축형 석탑'과 '전축모방형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동안 모전석탑은 이형석탑의 한 줄기로서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전축모방형 석탑은 나름 다양한 양식변화를 보이며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축모방형 석탑은 기단부 형식에 따라 가구식기단, 괴체석기단, 자연석기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식기단은 다시 단층기단과 이층기단으로 세분된다. 괴체석기단은 경주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괴체적으로 쌓은 기단, 우주를 생략한 탑신, 계단형 낙수면 등이 공통점이다. 자연석기단은 자연암반 위에 탑신부를 조성한 것으로 현재 경주 오야리 석탑만 남아 있다. 한편, 이들의 분포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은 경주에서만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

전축모방형 석탑 가운데 가구식기단이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괴체석기단과 자연석기단의 선후관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괴체석기단은 그동안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는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었다. 괴체석기단이 자연암반 기단을 평지에서 재현한 것이라면, 자연암반 위에 계단형 옥개석을 가진 탑신부를 올린 석탑이 선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연석기단인 오야리 석탑이 괴체석기단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축모방형 석탑이 건립된 지역은 고대 신라 교통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를 따라 이러한 석탑 양식이 경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영향을 받아 경주에서 괴체석기단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축모방형 석탑의 건립시기는 가구식기단, 자연석기단, 괴체석기단의 순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괴체석기단 석탑의 마지막 예는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으로 남산 정상부로 올라가면서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는 의도에 따라 남산의 자연석기단 석탑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소형의 전축모방형 석탑이 꾸준히 건립되고 있어 양식의 계승이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양식의 석탑이 대부분인 경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양식인 전축모방형 석탑의 등장은 신라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형석탑의 발생과 전개라는 측면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양식의 출현이 이후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이형석탑의 전개와 양식 계승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Imitation-Brick Stone Pagodas of Silla

Lee Sun-yeong *

Stone brick pagodas of the Silla period developed separately from the conventional-style stone pagodas in a unique style. They can be classified into the brick-structure type and the imitation-brick structure type depending on their format. To date, stone brick pagodas were studied as a part of non-typical stone pagodas. In particular, the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 has been found to have undergone diverse changes in style, which attracts attention.

The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stylobate: those with post and lintel stylobates; stacked rock stylobates; and natural rock stylobates. Pagodas with post and lintel stylobates are further divided into those with a single-tiered stylobate and those with a two-tiered stylobate. Pagodas with stacked rock stylobates, which are only found in Gyeongju, are characterized by a stylobate formed from a pile of unrefined rocks, a main body without corner pillars, and a roof surface shaped like stairs. Pagodas with natural rock stylobates were built on a base of natural rock. Currently, the stone pagoda in Oya-ri, Gyeongju is the only remaining example of this type. The distribution of these pagodas is restricted to certain regions. They have been found only in the North Gyeongsang region, while pagodas with stacked rock or natural rock stylobates are specifically based in Gyeongju.

Although it is without doubt that post and lintel stylobates appeared before the other two types,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order of origin between stacked rock

* Curator, Yongin City Hall

stylobates and natural rock stylobates. It is assumed that the style of pagoda with stacked rock stylobates was influenced by the way in which a natural rock was used as a stylobate, but no detailed attempt has been made to prove it. If the stacked rock stylobate is a recreation of the natural rock stylobate on flat ground, it is reasonably assumed that the earlier form consisted of stone pagodas with the main body and stair-shaped roof stone placed on a stylobate of natural rock.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stone pagoda with the natural rock stylobate in Oya-ri predates pagodas with stacked rock stylobates.

Meanwhile, the areas where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s were built were close to the transportation routes of ancient Silla, through which, it is understood, the style of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s was imported into Gyeongju and affected the emergence of the stacked rock stylobates in the city. This indicates that the construction of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s developed in the order of the pagoda with post and lintel stylobates, followed by pagodas with natural rock stylobates and pagodas with stacked rock stylobates.

The last example of pagodas with stacked rock stylobates is the three-story stone pagoda in Jigok village in Yongjang Valley, which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construction of pagodas with natural rock stylobates in Mt. Namsan, since the natural rock stylobate was more preferred on the higher part of Mt. Namsan. In addition, small-sized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s continued to be built through to the Goryeo period, which indicates that the style of Silla pagodas was passed down to the Goryeo period. Lastly, in Gyeongju, where most of the pagodas were general type stone pagodas, the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 featured a very unusual style. The emergence of the imitation brick structure stone pagoda shows the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Buddhist art of Silla and carries art historical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non-typical stone pagoda. Furthermore, as its style continued to the Goryeo period, it helps to understand a certain asp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non-typical stone pagoda and the transmission of its style.